

농어촌공사 광주지사, 수질보전 위한 '내고향 물살리기 캠페인'

작성 : 2025-10-27 17:45:01

수정 : 2025-10-27 17:45:01

박석호 기자



▲ 광주 광산구 진곡동 진곡저수지에서 펼쳐진 '내 고향 물 살리기 캠페인' [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]

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7일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소재 진곡저수지에서 수질보전과 안전영농을 위한 '내 고향 물 살리기 캠페인'을 벌였습니다.

이번 행사에는 공사 직원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저수지 부유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등 약 750kg을 수거했습니다.

참여자들은 저수지 주변 쓰레기 투기 행위를 예방하고, 농업용수 수질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'쓰레기 되가져가기'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

김철상 지사장은 "이번 환경정화활동은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질보전 활동의 의미가 크다"며 "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저수지 수질개선과 청정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

#한국농어촌공사

#광주지사

#내고향물살리기캠페인

#광주

